

## 간호학생이 예술작품을 통해 본 죽음의 의미 분석\*

김 영 경\*\*·조 계 화\*\*\*·김 명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로서 인간사회는 죽음을 생물학적, 자연적 현상뿐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사고와 행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작품이란 인간과 세계의 근원적 접촉 혹은 교류를 통한 의미와 가치, 행동의 통합적 창조로서 한편의 소설, 시, 그림 혹은 음악작품은 하나의 개체로서 인간과 상호주관적인 공적인 특성을 띠게 되며 사회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예술의 여러 긍정적인 가치들 중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각도로 세상과 대상을 보고 새로운 발견을 하도록 하는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Lee, 2003). 따라서 인간은 예술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험과 인식의 폭이 증대되고 지각된 사실을 행동적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진정으로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살아야 한다. 죽음이 갖는 인간 경험

의 한계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죽음에 관한 한 우리는 죽어가는 현상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궁구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학은 죽어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예술 장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Jeong, 1997).

현대사회는 젊음과 건강 추구 및 진보지향성으로 인해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실패로 보는 시대적 사조와 맞물려 인간적 삶의 전체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특히 출생에서 죽음까지 변화가 부단한 인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하는 직종을 선택한 간호학도들은 인간의 삶은 물론 인간의 죽음에 대한 깊은 공감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치유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은 삶의 연장에 더 가치를 두는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발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기성취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죽음을 자기문제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 해당되는 젊은 학생으로서 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지식과 체험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문적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최근 임종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간호학생에 대한 적절한 죽음 교육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임종과 완화간호교육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mdja@catholic.ac.kr)  
 투고일 2005년 5월 17일 심사외리일 2005년 5월 25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일

있지 않다. von Gunten(1996)은 간호학생이 죽음과 관련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태도를 숙고하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죽음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이 삶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곧 죽음 교육이 삶을 교육하고 인간을 교육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는 문화 속에서 인간의 죽음 현상을 둘러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죽음에 대한 연구는 연구 분야,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연구방법이나 연구대상자가 상이할 수 있다. 간호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죽음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로는 일반인(Lee, 2001), 의료인(Yun, 1999), 기독교인(Park, 2001), 호스피스간호 참여자(Kim, Jun, & Kang, 1997), 암 환자와 가족(Park & Kim, 1996), 노인(Ahn, 1999; Jo, 1997), 간호대학생(Baek, Lee, & Kim, 2001; Kim & Lim, 2002), 그리고 간호사(Kim, 1995; Park, 1996) 등이었다.

죽음에 관한 국외 연구들의 경우 이미 임종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교과과정 개발과 죽음교육의 도전적인 영역에 관한 연구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화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에 관해 검토한 Kingma(1994)의 연구, 간호교육과정 안에 죽음교육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지식, 기술, 자원들에 관해 의견을 제공한 연구(Matzo, Sherman, Penn, & Ferrell, 2003)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죽음에 관한 태도와 요인을 밝혀 교육과정개발로 연결시킨 연구(Matzo, Sherman, Lo, Egan, Grant, & Rhome, 2003) 등이 있다. 이외에도 Mallory(2003)는 간호사와 학생들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Kao & Lusk, 1997)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지각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동양 문화권에서 죽음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국내외 죽음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죽음교육에 관한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대학의 교육환경이 죽음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며 우리 문화에 적합한 죽음관련 교육과정 및 임종간호 교과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종간호 교육이 당면한 여러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학 전공 학생들이 예술작품에서 드러난 죽음과 관련된 간접체험을 통해 학생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예술작품을 통해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가?”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간호학생의 관점에서 죽음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느낀 죽음경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 소설, 영화 등의 예술작품을 통해 죽음에 대한 느낌을 기술한 보고서 자료를 기술적 내용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 2. 연구 참여자 및 참여자 보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일 간호대학 4학년생 42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중간에도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보고서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출판을 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 3. 자료수집 방법

참여자들은 시, 소설, 영화, 수필, 음악 등의 예술작품에서 나타난 임종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요약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기술하게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8월 2일부터 2004년 8월 29일까지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한 예술작품의 장르별 분포는 문학작품으로 시와 소설이 각각 5편, 수필이 3편이었고, 음악 1편, 드라마와 영화 같은 종합예술 작품이 각 3편, 15편이었다(Figure 1). 장르별 중복 횟수를 포함하면 총 56편의 예술작품에 관한 학생들의 느낌이나 사고가 분석되었다.

시	은수저(김광균), 귀천(천상병), 유리창(정지용), 꽃(조병화), 하관(박목월)	소설	아버지(김정현), 가시고기(조창현),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파울로 코엘료), 국화 꽃 향기(김하인), 타나타노트(베르나르베르베르)
수필	죽음을 이야기하다(달라이라마),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최화숙),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미치엘봄)	가사	삼도천(이상은)
영화	Sweet November, 아들의 방, 가시고기, Last Concert, My girl, 박하사탕, 편지, 하루, 축제, 천국보다 아름다운, 오세암, Goodbye My friend, 테드맨워킹	드라마	쌍둥이 엄마의 육아일기, 로즈마리, 네 멋대로 해라, 완전한 사랑

〈Figure 1〉 Art Works in Genre

#### 4. 자료분석 방법

다년간 질적연구를 해 온 본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서면 기록을 읽으면서 텍스트와 진술로 여러 번 되돌아가며 아래의 과정을 통하여 기술된내용을 분석하였다.

- 1) 예술작품을 통해 간호학생이 죽음에 관해 느낀 내용에 대한 기술을 심사숙고하면서 읽었다.
- 2) ‘죽음’ 혹은 ‘임종’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구나 문장으로부터 중요한 진술들을 파악하였다.
- 3) 진술들을 주요한 주제군, 주제, 범주들로 분류하였다.
- 4) 모든 주제군, 주제, 범주에 대한 설명적인 통합을 하였다.
- 5) 여러 맥락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의 판단에 의해 형성된 의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6) 분석의 전 단계를 통해 도출된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적 기술을 포함하였다.
- 7)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생들이 예술작품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 오늘날 임종간호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 관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에 관한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예술작품을 통한 죽음에 대한 범주는 [죽음의 정의],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반응], [죽는 자를 보는 주변 사

람의 느낌], [참여자의 느낌], [참여자의 다짐] 등 6가지의 26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인 ‘죽음의 정의’는 참여자들이 예술작품을 처음 접한 후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에 대해 예술작품에 나타난 그대로의 내용을 통해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은 참여자들이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주인공의 입장(혹은 작가를 통해 표현된 입장)에서 추출한 것이다. 세 번째 주제군인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반응’은 작품 속에 그려진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반응을 기술하였다. 네 번째 범주인 ‘죽는 자를 보는 주변 사람의 느낌’은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죽음에 대해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등장인물(혹은 작가)을 통해 드러난 부분을 참여자들이 기술한 것이다. 다섯 번째 범주인 ‘참여자의 느낌’은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참여자가 느끼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여섯 번째 범주인 ‘참여자의 다짐’은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참여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각오를 다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다.

#### 1. 죽음의 정의

죽음의 정의에 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참여자들이 기술한 죽음의 정의에 관한 주된 내용은 삶의 끝, 소멸, 삶의 일부, 또 다른 삶, 자연의 섭리, 단절, 파괴, 공포의 대상, 패배, 깨달음의 기회, 아름다움 등으로 나타났다. 문학작품 속에서 이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다’, ‘시작

<Table 1> [Definitions of Death]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태어남의 마지막은 죽음이 되리라, 인생행로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끝마치는 일, 삶의 끝에 있는 그 무엇일 뿐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인생의 끝	끝, 마감, 마지막	삶의 끝
사람의 몸엔 에너지가 소모되어 없어지는, 생명이 사그라지는, 흩어지기 마련이고 모아둔 것은 남김없이 소모되며 일어난 것이 가라앉으니, 생명이 다 한 것,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생명의 등불을 서서히 끄며 조용히 숨져가다	소모되어 없어짐, 생명이 사그라짐, 남김없이 소모됨, 다 함, 서서히 끄	소멸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일부분,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의 차이, 자연스런 삶의 한 부분, 아무도 죽음 없이 온전하게 삶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죽음이 삶의 짝이듯 삶은 죽음의 짝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삶과 함께 떠나바퀴 돌 듯 돌아가는 것이다, 삶이 죽음에 영향을 미치고 죽음 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의 일부, 삶의 일부, 삶의 짝, 떼어 놓을 수 없음	삶의 일부
멈추고 새로워지고, 멈추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생에서 꿈꿔오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 끝이 아니라 변화, 죽음 뒤에 숨어 있는 희망 꿈	다른 삶으로 나아감, 변화, 새로운 시작, 시작, 생명의 등불	또 다른 삶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죽음은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의 끝에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이며 자신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며, 힘겨운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올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 올 수도 있다	불가항력, 자연의 섭리, 자연스러운 과정, 피할 수 없음, 결정할 권리가 없음, 불쑥 갑자기 찾아옴	자연의 섭리
간다 대답이 없다 이승과 저승으로 단절된 상황, 현실과의 단절 삶과의 단절 남겨진 사람들과의 단절, 대답이 없다	빈 자리, 이별, 단절, 상실	단절
행복한 가정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불행	망가뜨림, 박탈함, 불행	파괴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새까만 밤, 어둠다, 새까만	무서움, 두려움	공포의 대상
죽는 자는 인생의 낙오자이다	낙오자	패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봄, 아름다운 추억이고 경험이다, 불행은 아니다, 아름답다	깨달음, 의미 있음, 내면을 직시함, 아름다운 경험	깨달음의 기회

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에너지가 소모되어 없어지는’, ‘생명이 사그라지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 ‘이 둘은 떼어 놓을 수 없다’,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 ‘끝이 아니라 변화’, ‘간다’, ‘대답이 없다’, ‘현실과의 단절’, ‘삶과의 단절’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Kim(2001)은 정지용의 시에서 나타난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죽음을 별개로 보지 않고 삶의 또 다른 국면으로 보았다. 그는 삶은 죽음을 해석하며 죽음 역시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삶이 죽음과 함께 함으로써 그 완전한 형상성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한 순간이라도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 삶의 모든 순간들은 죽음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죽음에 동전의 양면처럼 조용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죽음의 양식에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검정색으로 묘사함으로써 부정적이고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 외에도 죽음을 낙오자로 표현한 것은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도 보았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작가마다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지만 죽음이란 삶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으며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보다 진

지해진다고도 볼 수 있겠다.

2.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에 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에 관한 주된 내용은 ‘두려움’, ‘피하고 싶음’, ‘낯설’, ‘절박함’, ‘허무함’, ‘우울함’, ‘간절함’, ‘새로움’, ‘외로움’ 등이다. 작품 속에 나타난 표현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한다’, ‘멈추고 싶은 순간들...’, ‘자꾸만 살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 ‘피하고 싶다’, ‘거부하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혼란에 빠진다’, ‘낯설다’, ‘직시할 수 없다’, ‘남은 시간에 대한 초조함’, ‘늪우침’, ‘아쉬움’, ‘안타까움’, ‘절박함’,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끼다’, ‘죽음에 대한 미움’, ‘죽음을 혼자 이겨야 하고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고’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주인공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드러내고자 했던 느낌 역시 문학작품을 통해 논쟁거리가 되었던 ‘삶’과 ‘죽음’은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릴케는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이 세상과의 진정한 합일을

<Table 2> [Feelings on Death of Main Character]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커져간다, 공포가 극에 다다르면서 고통이 몸까지 퍼져간다	고통스러움, 두려움, 공포를 느낌	
되돌리고 싶은 시간, 멈추고 싶은 순간들..., 자꾸만 살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 모르는 척 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거부하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더 살고 싶음, 되돌리고 싶음, 멈추고 싶음	
혼란에 빠진다,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에 큰 충격 이름 분노 혼란 등 온갖 감정을 다 느꼈다, 낯설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갈팡질팡하다, 혼란스럽다, 직시할 수 없다	갈등, 부자연스러움, 혼란스러움, 분노함	고통스러움
삶에 대한 체념, 남은 시간에 대한 초조함, 누우침, 아쉬움, 안타까움, 절박함, 눈물겹다, 애절함	초조함, 누우침, 아쉬움, 애절함, 간절함	
죽음을 혼자 이겨야 하고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고, 두려움과 떨기 속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다, 자신을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너무도 절박했다, 삭막하다	처절하게 고독함, 혼자 이겨내야 함, 아무도 옆에 없음	
뭔가 끔찍하게 손해보고 살아온 것 같고 자신만이 세상에 뒤쳐져서 살아온 낙오자 같은 느낌, 억울하고 허무함을 느낀다, 인생에 대한 허무감,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죽음에 대한 미움	억울함, 허무함, 허탈함	허무함
죽음은 한없이 두렵지만 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깊어지고 나가야할 어깨 위의 짐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 꿈꾸어오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며 불행만은 아니다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음, 새로운	새로움

희망하고자 했다. 이러한 합일로서의 삶은 봄이 선사하는 축복이 넘치는 “새 삶”처럼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요, 시작으로서 현실적 삶을 지양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Lee, 2000). 이처럼 죽음은 극복이 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작품들은 새로움보다는 어두움에 더 치중하여 죽음의 부정적인 면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3.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반응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반응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에 관한 주된 내용은 ‘가족을 걱정함’, ‘절대자에 의지함’, ‘살려고 노력함’, ‘분노하고 좌절함’, ‘남은 생을 잘 보내려 함’, ‘겸허히 수용함’, ‘포기함’, ‘삶을 돌아봄’, ‘울음’ 등이다.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된 표현은 ‘기도를 한다’, ‘신에게 매달리다’, ‘용서받기 원하다’, ‘의지할 데를 찾다’, ‘기도하다’,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거부한

<Table 3> [Responses on Death of Main Character]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걱정하고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힘들어 할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남겨진 자를 걱정함, 가족을 걱정함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며 생을 마감하고 싶어함, 조용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심	남겨진 인생을 즐김,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삶	삶에 집착함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는지 물으며 생존의 방법을 모색한다,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며 죽음에 맞서려하였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 수소문해서 (좋은) 치료를 받는다	생존방법을 모색함, 죽음에 맞섬, 희망을 가짐	
죽기 직전까지 아들과의 추억을 더듬는다,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 본다, 삶의 의미를 각성하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다	회상함, 삶을 돌아봄	
처음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써 담담한 척 하며 죽음을 부정한다, 화풀이하고, 술에 의지하며 화를 이기지 못한다, 왜 하필이면 자신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늘을 원망하고 심한 좌절을 겪는다	원망, 부정, 거부, 좌절, 화, 분노	분노하고 좌절함
죽음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편안한 모습을 보인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위엄 있게 침착하게 겸허히 받아들임	수용함
결국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놓아버리고 만다,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는다	결국 받아들임, 삶을 놓아버림	
기도를 한다, 신에게 매달리다, 용서 받기 원하다, 의지할 데를 찾다, 기도하다	신에게 매달림	절대자에 의지함

다, ‘죽음을 슬퍼하며 화를 내고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위엄있게, 용기있게, 침착하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다’ 등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반응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죽음에 대한 과정을 제시한 Ross(김진옥, 2000 재인용)의 이론을 다시금 입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죽음만큼 인간의 본질적 특성, 즉 보편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드물다. 따라서 죽음을 소재로 한 소설 작품의 경우 대부분 주인공의 죽어 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조망하게 된다(Jeong, 1997). 본 연구의 예술작품 속에 비쳐진 주인공의 반응 역시 많은 다른 작품에서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릴케는 모든 생존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미지의 대상으로써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수 있지만 그 무서움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예비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서 시적 자아는 위의 시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피력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이여 죽음이여 “오라”라고 외치는 용기 있고 강한 마음가짐을 강조하였다(Lee, 2000). 본 분석작품의 주인공들도 일부는 좌절했지만 일부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용기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 4. 죽는 자를 보는 주변 사람의 느낌

죽는 자를 보는 주변 사람의 느낌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죽는 자를 보는 주변 사람의 느낌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고통스러움’, ‘믿어지지 않음’, ‘간절함’, ‘무기력함’,

‘두려움’, ‘후회함’, ‘슬퍼함’, ‘용서함’, ‘아파함’, ‘불쌍함’ 등이었다.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된 표현은 ‘처절했고 애절했다’, ‘너무도 간절하다’,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다’, ‘지난 일들을 후회하며’, ‘오열을 한다’, ‘눈물을 흘린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은 죽음을 앞둔 당사자의 느낌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서 특히 두려움, 고통스러움, 간절함 등은 일치하였으며 후회함, 용서함, 무기력함 등의 느낌은 주위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감정들이었다.

#### 5. 참여자의 느낌

참여자의 느낌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참여자의 느낌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짐’, ‘고통의 끝’,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함’, ‘겉허히 수용해야 함’,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어야 함’, ‘슬픔’, ‘외로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임’, ‘가정을 파괴함’, ‘아름다움’, ‘포기해서는 안 됨’, ‘자연스럽게 보내주어야 함’, ‘새로운 시작임’, ‘피하고 싶음’, ‘억울함’ 등이다.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된 표현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창조자의 것’,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세계를 갈구한다면 보다 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죽음에서는 혼자 외로운 길을 간다’, ‘철저히 혼자여야 한다는 외로움’, ‘혼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Table 4> [Feelings on Main Character' Death of Significant Others]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큰 고통이다, 죽어 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특히 아버지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고통이 더욱 더 큰 것 같았다, 죽음의 고통으로 단절되었던..	고통스러워함, 가슴 아파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쉬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을 만큼의 애절한 마음이 잘 녹아있는, 처절했고 애절했다, 너무도 간절하다	처절함, 애절함, 간절함, 조조함, 아쉬움	고통스러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힘들어하는	무기력함, 힘들어함	
더 이상의 기억을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다, 두려움과 동시에..	두려움	
오열을 한다, 눈물을 흘린다,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가족에게는 슬픔만이 드리워졌다, 슬픈 감정을 가져다주는, 그리움으로 오열한다	오열함, 통곡함, 눈물을 흘림, 슬퍼함	
계속 후회한다, 떠나보내면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과 그 해 주지 못 했던 모든 일들이 후회스럽고 영원히 가슴이 멎힐 일들뿐이다	후회함, 죄책감을 느낌	후회함
불안하기만 했던 위태로워 보이기만 했던 가족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하나로 뭉친다, 서로 미워하고 불만에 차있었지만 용서를 하는	하나로 뭉침, 용서함	용서함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믿어지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충격으로 다가온다..	믿어지지 않음, 충격적임	믿을 수 없음

<Table 5> [Feelings of Participants]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슬프고 어둡고 우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퍼 눈물이 고였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불쌍하다, 그리움에 사무칠 것	아프고 슬픔, 그리움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혼자 외로운 길을 간다, 혼자만 아프고 죽어가야 한다면 세상의 고통은 나 혼자만 짊어지고 있는 느낌	혼자 외로운 길을 감	
여태껏 겪어 왔을 고통의 시간들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 혼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포감을 느낄 것, 슬프고 무섭다,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로	두려움, 공포에 떨, 어두움, 무서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임
행복한 가정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가정을 망가뜨림	
평소에 죽음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왠지 꺼림칙하고 말하기 싫었다	꺼림칙함, 언급하기 싫음	
한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자신의 죽음을 결심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삶의 변화 계기임, 끝이 아님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슬프고 무섭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아름답게도 보일 수 있겠다, 아름답다	아름답게 볼 수 있음	좋은 변화임
소원을 이루는 기회, 슬픔 대신 편안함, 맑고 따스함, 죽음은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고 안위를 찾음	소원을 이루는 기회임, 슬픔 대신 편안함, 안위를 찾는 방법임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세상에 대한 따스한 시선,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	세상에 대해 따뜻하게 대함, 소중히 여김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짐
함께 하던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침	
죽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사회적인 고통을 겪지는 않음,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적 고통이 있음, 사회 문화적 배경이 중요함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함
보다 안타까운 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담담히 맞이해야 함, 내 것이 아닌 생명에 대해 겸손해야 함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죽음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슬퍼하는 일은 덕스러운 행위를 쌓을 좋은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 볼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야 함, 죽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어야 함
끝이 없는 치료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집착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내줘야 할 때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하게 보내줘야 한다	끝없는 치료는 집착임, 편하게 보내주어야 함	
세상을 원망하고 실의에 빠져, 너무 억울하고 신이 있다면 신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신에게 매달릴 것이다, 신을 원망할 것이다. 원망과 분노로 일탈적인 행동을 하겠지만	신을 원망하고 신에게 매달림	억울함
너무 억울하고 신이 있다면 신에게 화를 내고,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동안만은 남들보다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 남들보다 적게 살고 가는 것이 억울하니까...	억울함, 특별한 권리를 누려야 함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보다 주변인들과 함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죽음 앞에서의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주변을 배려해야 함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참여자는 ‘주변 사람들은 대상자에게 종교적인 가르침과 수행을 상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숨이 멈출 때 까지 조용하고 부드럽게 속삭여 줄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든지 ‘영적인 수행의 필요성과 여유를 모두 준 현재 삶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죽음에 대해 명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부 작품에 묘사되었듯이 죽음은 아직

까지는 두려움이며 따라서 ‘공포에 떠는, 죽기 싫어 발버둥치는 모습, 고통스러운 어둡고 발버둥치는, 불행하고 공포에 떠는, 슬프고 아프고 무서운’ 등의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였다.

6. 참여자의 다짐

참여자의 다짐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참여자의 다짐에 따른 주제의 내용은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함’,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짐’, ‘작은 것도 감사함’, ‘가족을 귀하게 여김’, ‘늘 죽음을 상기함’,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재고함’, ‘말기환자 간호지식을 확장시켜야 함’,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 ‘가족도 간호해야 함’, ‘원하는 바를 도와줌’ 등이다.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주된 표현은 ‘조금 더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의 생명을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환자가 원하는 대로 돌보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등이었다.

이상과 같은 주제군을 중심으로 예술작품을 통한 간호 학생의 죽음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 간호대학생들은 지금까지 일상의 생활습관대로 살아 오면서 죽음이란 부분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사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주제로 여겼다. 심지어 간호학 전공을 선택했음에도 이처럼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숙고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모든 인간이 간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죽음을 잘 이해하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남겨진 가족의 슬픔도 다스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또한 간호대상자의 죽음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임종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간호실무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임종환자를 간호하게 될 간호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완충시키고 대상자와 가족에게 좋은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간호학생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근거를 강조하는 간호실무에 도움

<Table 6> [Oaths of Participants]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예상해 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 당장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는 없으므로 축복받고 평화로운 죽음에도 준비는 필요하다, 죽음이라는 문턱에 서고 나서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면 늦다	죽음에도 준비는 필요,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할 것임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함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함, 매 순간 죽음을 준비함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 내게 소중한 것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겠다, 지금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소중히 해야겠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 자신의 삶에 충실하겠음	
각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지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성공한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중요함	삶에 대해 진지해짐
죽으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아서 할 수 있는 한 잘 대해줘야 한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가족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갖고 교감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가족에게) 살아서 할 수 있는 한 잘 대해줘야 함,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것임	
임종간호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불안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기본적인 죽음에 관한 철학을 나름대로 세우고 배울 필요가 있다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죽음에 관한 철학을 나름대로 세우고 배울 필요가 있음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도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	영적인 부분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	말기환자 간호교육이 필요함
가족까지 간호대상자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종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간호를 중요시 여기고 “공감”해 주겠다	가족에게도 변화가 있음, 가족도 간호대상자임	
생명에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환자가 원하는 대로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가 하고 싶어하는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원하는 대로 돌보아 주어야 함,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줄 수 있도록 임종간호교육과정 구성과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임종간호 현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시, 소설, 영화 등 예술작품에서 나타난 죽음과 관련된 간접체험을 바탕으로 간호학생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는 임종 현장에서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극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임종간호의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은 죽음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본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예술작품을 통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두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이 끝낸 죽음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했다. 나아가서 간호대학생 또는 간호사의 입장에서 임종환자나 말기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나 그 가족의 심리적, 정신적 및 영적 간호 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호스피스간호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말기 및 임종간호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경험한 죽음의 의미와 본질을 간호학생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 진술은 크게 [죽음의 정의],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반응], [죽는 자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느낌], [참여자의 느낌], [참여자의 다짐]의 6개의 범주와 26가지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죽음을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간호학생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전문가답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의 다양한 상황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죽음은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할 자

연스런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대상자나 그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면서 호스피스, 말기 및 임종환자 간호에 필요한 지식을 보다 많이 습득하고 준비함으로써 대상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호스피스 간호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교육해 볼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Ahn, W. R. (1999). Development of the factors effected to death attitude of elders and the program for preparation of death education. *J Korean Psych Nurs*, 8(1), 44-68.
- Beak, S. H., Lee, M. A., & Kim, I. H. (2001). A study of perceptual change towards death of nursing students.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hospice care. *J Korean Fundam Nurs*, 8(3), 153-169.
- Jeong, Y. K. (1997).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等身佛의 불교적 死生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이론연구*, 7, 231-254.
- Jo, M. O. (1997). The meaning and preparation of death perceived by elders: cultural descriptive inquiry as an case-study. *J Korean Gerontology*, 17(3), 1-35.
- Kao, S. F., & Lusk, B. (1997). Attitudes of Asian and American 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death and dying. *Int J Nurs Stud*, 34(6), 438-443.
- Kim, B. H., Jun, M. Y., & Kang, W. J. (1997). A study of perception for hospice member. *J Korean Adult Nurs*, 9(3), 453-461.
- Kim, H. R. (1995). *A study on death attitude of nurses experienced terminal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T. (2001). 정지용 시의 죽음의식 연구. *우리 어문연구*, 16, 181-206.
- Kim, M. A., & Lim, S. H. (2002). A Q-study on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Keimyung Nurs Sci*, 8(1), 43-54.

Kingma, R. (1994). Revising death education. *Nurse Educ, 19*(5), 15-15.

Lee, D. Y. (2000). 릴케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12*, 145-171.

Lee, H. W. (2003). How to define "Popular art" in the era of mass media. *미학, 35*, 319-378.

Lee, K. S. (2001). A study of death experience. *J Korean Psych Nurs, 10*(3), 368-375.

Mallory, J. L. (2003). The impact of a palliative care educational component on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Prof Nurs, 19*(5), 305-312.

Matzo, M. L., Sherman, D. W., Lo, K., Egan, K. A., Grant, M., & Rhome, A. (2003). Strategies for teaching loss, grief, and bereavement. *Nurse Educ, 28*(2), 71-76.

Matzo, M. L., Sherman, D. W., Penn, B., & Ferrell, B. R. (2003). The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ELNEC) experience. *Nurse Educ, 28*(6), 266-270.

Park, C. S., & Kim, S. J. (1996). Type of death attitude for Family members of cancer patients. *J Korean Fundam Nurs, 3*(2), 153-169.

Park, P. N. (2001). A study of death attitude for christianity. *Hospice education study, 5*, 55-75.

Park, S. J. (1996). *A disposition for death and degree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 Ju, Korea.

Ross, E. Q.(김진옥 역, 2000), *죽음의 순간*. 서울, 자유문학사.

von Gunten, C. F. (1996). Why I do what do. In L. Blank (Ed.), *Caring for the dying: Identification and promotion of physician competency-educational resource and personal narratives*. Philadelphia: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Yun, Y. J. (1999). A subjectivity of death for health care managers. *J Korean Adult Nurs, 11*(2), 205-214.

11(2), 205-214.

- Abstract -

##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Art Works

Kim, Yeong-Kyeong\*, Jo, Kae-Hwa\*\*

Kim, Myoung-Ja\*\*\*

**Purpos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art works. **Metho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content analysis were used. The text were essays written by 42 senior nursing students about their impressions on death through art works. **Result:** 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and twenty six themes. The six categories include definitions of death, feelings about the death of a main character, responses to the death of the main character, feelings of significant others about the death of the main character, feelings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and oaths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clusion:** It is shown that participants recognize their position as nursing students, although they may not escape the fear of death, will learn to cope with death, and the dying in a suitably professional manner. In this respect, the study i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the students in learn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are needed for hospice nursing care more effectively.

Key words : Death, Nursing students, Art works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